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성북(을) 국회의원 후보

2016년

새로운
성북이
돕니다

청와대 ○

김대중대통령 청와대 행정관(前)

지방정부 ○

박원순 서울특별시 부시장(前)

중앙정부 ○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前)

국회 ○

정책연구위원(2급)(前)

대학 ○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초빙교수(前)

2

새로운 성북의 설계자

기동민

책자형 선거공보

서울 성북(을) 선거구

돈암1동, 길음2동, 종암동, 월곡1·2동, 장위1·2·3동, 석관동



보통사람들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1972년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과 함께 2016년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득권과 구질서를 닮은 국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보통사람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친 바람을 맞아 싸울 때는 세상을 제대로 배우고 익힌, 실력으로 무장한 헌헌장부가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 부시장, 청와대 행정관, 국회 정책연구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성균관대 초빙교수로 일한 경험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의 성복을 위해 써보려고 합니다.

정치혁신, 세대교체라는 태풍의 한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물론이고 캐나다, 스페인까지 젊은 거인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과 행동으로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낡은 습관과 생각을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마침 더불어민주당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참 멀었습니다. 정치혁신과 세대교체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생각을 혁신해야 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새로운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총선에서 승리하고, 2018년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가겠습니다. 정치혁신, 세대교체라는 태풍의 한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구호가 아니라 실력으로, 이론이 아니라 실천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불우한 시대와 맞서겠습니다.” **성복(을) 국회의원 후보 기동민 올림**

도시철도 동북선 조기착공 추진

01

홍릉 바이오-의료R&D 거점 조성 및 확산 추진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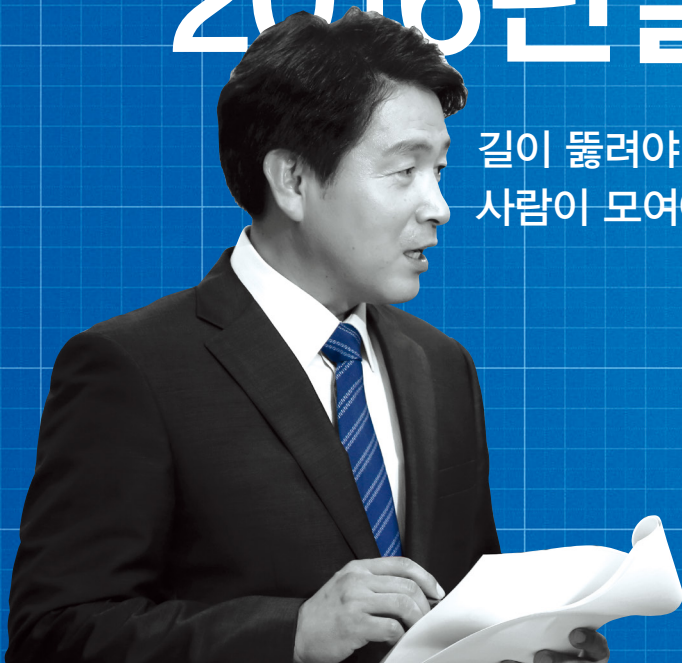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석계역 박스파크 조성 추진

03

기동민의 신(新)성북 구상 3대 인프라 구축

2016년을 바꾸면

길이 뚫려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문화가 생기고, 경제가 삽니다





2020년 성북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성북의 설계자

기동민

2016년을 바꾸면 2020년 내 삶이 달라집니다

01 동북선 조기착공 / 주민 뜻 모아 중전철화 검토 추진

- 1 민간사업자 부도로 인해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 「제3기 서울도시철도 동북선」 사업,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상화 추진
- 2 동북선, 4호선, 6호선 라인 따라 광범위한 역세권 형성,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 모색
 - ▷ 성북을 권역내에 고려대역(6호선) 외 6개 역 신설
 - ▷ 고려대역 - 송례초교 - 종암경찰서 - 송곡중 - 창문여고 - 북서울꿈의숲(동문3거리) - 롯데캐슬A
- 3 고려대역(6호선 · 동북선) + 홍릉, 미아사거리역(4호선), 석계역(6호선 · 1호선) 중심 성북발전 전략 수립 추진
 - ▷ 고려대역 + 홍릉 권역 : 바이오의료 R&D + 창업
 - ▷ 미아사거리역 권역 : 상업 + 문화 ▷ 석계역 권역 : 교통 + 물류

종암 · 월곡이 창조산업권역으로 탈바꿈 합니다

02 홍릉 바이오·의료R&D 거점 조성 및 확산

- 1 「행복4구 플랜」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14.4)
- 2 **홍릉 혁신역량과 창조경제 잠재력**을 월곡로~화랑로를 따라 종암, 석관 지구 중심으로 확산되도록 마중물 거점과 연계 전략 수립 추진
- 3 종암 지구중심에 **지식산업클러스터**(종암 · 월곡 창조산업권역) 구축, 성북발전의 거점 및 지역성장 기반으로 육성 모색
- 4 회기로 - 화랑로 연계 **창조산업 특화거리** 조성 추진
- 5 홍릉 - 월곡 - 종암을 연계한 **바이오 의료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
- 6 미아 지역중심과 인접한 도시철도 **동북선 신규역세권 활성화** 방안 수립으로 종암동 지역 발전 모색
- 7 서울시와 협조하여 **舊농촌경제연구원에 홍릉바이오의료 앵커 시설 조성 추진**(2017년 완공, 서울시 계획), 바이오 의료 중심 산업생태계 구축 추진

신개념 도시가 옵니다

03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석계역 박스파크 조성 추진

- 1 상계~대치 구간 총 17.2km(성북구 구간은 석관동 일부), 총 1조7천억 원의 민자사업 추진 모색
- 2 북개 구간 내 녹지클러스터 조성 추진하여 주민 휴식공간 및 공원 마련 검토
- 3 석계역(1호선 + 6호선) 주변 「박스파크」 조성 추진

(성북의 과거) 길음교, 월암교간 기공식



(성북의 과거) 성북구청 새마을운동



(성북의 과거) 성북천 도로공원 준공식



(성북의 과거) 미아리 도로공사

「2030 서울플랜」과 성북이 가까워집니다

1 도시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 신규역세권 활성화

- > 제3기 서울도시철도 동북선 조기 착공 추진
- > 동북선 신규 역세권 중심기능 제고
- > 월계로 개선을 통한 동서간 교통체계 개선 모색

2 서울형 창조경제의 거점, 동북권 성장의 중심지 성북

- > 지식산업클러스트(종암·월곡 창조산업권역) 조성 및 지역성장기반 구축 추진
- > 전통시장 지원 및 지역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모색

3 이사 걱정 없는 삶터, 정든 성북 만들기

- > 월곡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및 지상부 복합건물 건설 추진
- > 청소년 휴카페 설립(장위동 일대) 추진



장위-석관 일대 패션봉제산업, 서울시-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 > 아파트형 공장 설립 적극 검토
- > 서울시 동대문소품(Showroom)사업과 연계한 성북쿼터제(일자리/오더 창출) 추진
- > 서울시, 중기청, 성북구, 업계와 함께 성북산업발전위원회 구성 추진
- > 정부, 서울시 지원금 추가 확보 노력



국민의 삶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chosun.com 정치

"한국경제 체력, 일본식 장기 불황 견뎌내지 못할 것"

특 심크랭크 대외비 보고서

한국의 지금 경제 체력으로는 일본식 장기 불황이 닥쳤을 때 이를 견뎌 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새누리당에서 나왔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는 많은 전문가가 해 왔다. 이에 대해 집권 여당 심크랭크에서 "그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견뎌 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한 것이다.

당에서 나왔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는 많은 전문가가 해 왔다. 이에 대해

- > 올 1월, 수출 18% 감소, 무역적자 심각
- > 국내 기업 94%,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 _ 현대경제연구원
- > 연 4% 성장 약속했던 박근혜정부 연 2% 성장률에 그쳐

주간강향 2016.02.23 1164호

SOCIETY 2016.02.16 주간강향 1163호

[표지이야기] 추락하는 중산층, 더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는 중산층 70% 재건이었다. 그러나 갈수록 중산층의 비중은 줄고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비중이 늘고 있다. 노동과 복지, 사회안전망을 외면한 정부정책으로 위기의 중산층은 살얼음판 위에서 있는 것이다.

- > 한국 중산층 가구의 55%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음 _ 2013 맥킨지 보고서
- > 박근혜 대통령은 중산층 70% 재건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중산층은 IMF 때보다 더 줄어들었음
- > 교육, 주거, 노후, 부채 등 중산층과 서민을 위기에 빠뜨리는 4가지 덫

KBS NEWS

두산, 20대 희망퇴직 번복 소동...업계 감원 한파

입력 2015.12.16 (23:08) | 수정 2015.12.17 (00:25) 뉴스라인

- > 고용없는 성장 속 청년실업 11% 돌파, 15년만에 최고치
- > 한국인의 평균퇴직연령은 53세, 부모는 퇴직하고 자녀는 취직을 못하는 사회
- > 자살률, 산재사망률, 남녀간 임금격차, 저임금 노동자 비율, 노동시간 등 OECD 국가 중 한국의 단골 꼴찌 항목

SBS 뉴스

[뉴스돋보기] 광속증가 국가부채 6백조 원...결국 후대의 짐

3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청년배당 분기당 12만 5천 원, 산모에게 1인당 25만 원 공공 산후 조리 지원, 중학교 입학생에게 1인당 15만 원 무상 교복사업 지원,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사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 > 국가부채 600조, 가계부채 1,200조 시대
- > 국가부채 지난 8년간 연속 증가세,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216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정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보통사람들의 편이
되겠습니다



예산, 정책, 사람을
성북으로 끌어오겠습니다

새로운 서울의 전략가, 새로운 성북의 설계자 기동민



서른 여섯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참여정부 정권재
창출을 성공시켰습니다.



마흔 여섯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우리사회의 새로운 좌표를
그렸습니다.



서른 아홉

민주주의자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일하며,
복지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했습니다.



마흔 아홉

성균관대 초빙교수로
새로운 미래의 청사진을
가르쳤습니다.



마흔 다섯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현실정치를 익혔습니다.

청와대 - 보건복지부 -
국회 - 서울시 - 학계가 검증한
새로운 성북의 설계자 기 동 민



서울의 변화, 기동민 부시장이 있었습니다

정책을 실천했습니다.

시립대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실현

약자를 지원했습니다.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양화대교 피해자 지원

채무를 줄였습니다.

서울시 채무 16조 7천 억원 감축,

메트로 9호선 열세 낭비 방지

도시를 바꿨습니다.

아현고가 철거, 안전 디자인 실현

갈등을 줄였습니다.

버스파업과 지하철 파업 갈등 조정

위험을 없앴습니다.

수해 및 안전 대책 컨트롤 타워,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수습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세빛둥둥섬 해결책 제시,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실현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열린 시장실, 현장 시장실 운영

“(기동민 부시장이) 나와 같이 옆에서 일했다고 하면 그게 중요한 강점이 되지 않겠느냐” _ 2014.06.18 박원순 시장 오찬간담회, 한겨레신문

“한 때 ‘여의도 최고 전략가이자 실천가’로 불렸던 사람. 그는 사업 시행사와 유가족을 설득해 유가족 보상문제를 해결해 내는 해결사로서 탁월한 역량을 보여 주며 궁지에 몰린 박원순 시장을 구해낸 일화는 유명하다. 어려운 국면을 맞아 ‘해결사’ 기동민 부시장의 역량이 더욱 빛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_ 2014.04.14, 아시아경제

“기 부시장은 재임 기간 중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시장 취임 이후 가장 큰 사고였던 노량진 상수도관 수몰사고 당시 장례 현장을 진두지휘 하면서 하루 만에 시행사와 유족 간의 합의를 도출해냈다. 효성그룹과의 세빛둥둥섬 재협상 과정도 도맡아 무상 사용기간을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시키는 성과를 냈다.”

_ 2014.04.15, 경향신문

“기 전부시장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시장의 핵심 측근으로, ‘박원순식 시정’이 원만히 그리고 전면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관료사회와 정치권, 시민사회와의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한 인물이다. 서울시의 한 간부 공무원은 “박원순 시장의 시민행정에 대한 관료사회의 저항을 개혁의 동력으로 전환시킨 인물”이라고 평했다.”

_ 2014.06.17, 오마이뉴스 인터뷰 기사

새로운 서울을 만든 사람들을 성북발전의 자문위원으로 모셨습니다

김상범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전)

정효성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전)

문승국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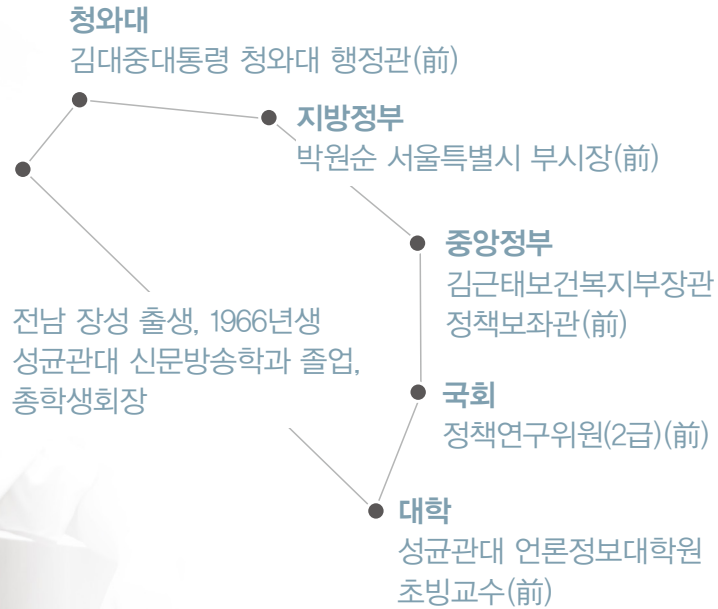
김병하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전)

이건기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전)

이창현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장(전)

이윤호 동국대 행정대학원장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성북발전, 이길밖에 없습니다 일잘하는 세대교체, 기동민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합니다. 오래된 집권세력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준비안된 제3세력도 아닙니다. 스스로 혁신하는 자가 세상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과 함께 하며 새로운 소통과 협치의 시대를 열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시민들의 소소한 삶의 변화에 주목하는 새로운 10년의 기초를 박원순 시장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성북은 저의 삶입니다. 새로운 시간이고 새로운 도전이며 새로운 미래입니다.
그 태풍의 한 가운데로 두뼘두뼘 걸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순리이고 상식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전 투표 공지】

4월 8일(금)~9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장소 : 각 동 주민센터 등

국군 장병들께 드리는 글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후배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서민복지와 민생경제, 평화와 정의의 길을 열겠습니다.

2016년 4월 1일 기동민 드림

